

보도시점 2026. 10. 29.(목) 석간 < 2026. 10. 29.(목) 06:00 >

로컬창업 소상공인 투자유치 1,227억원 달성

- '23년 이후 LIPS를 통해 로컬창업 소상공인 765개사에 1,227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 10개사는 중기업으로 성장
- 민간투자가 제조업 등 로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화장품, 식·음료(F&B) 등 K-소비재의 수출까지 이어지며 성장 기반 다변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29일(목) 「로컬창업 소상공인 대상 민간투자 동향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립스*는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지역의 고유한 자원, 문화, 특성을 가진 로컬창업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 및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23년 사업 도입 이후 실적을 바탕으로 로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흐름과 성장 성과를 살펴봤다.

* LIPS(Local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SME) : 민간 투자사로부터 소상공인이 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최대 5배 융자(5억원 이내)·3배 사업화 자금(2억원 이내) 지원

① 로컬창업 투자 동향 ※ '23.~'26.8월 수혜기업 대상 분석(765개사)

'23년 이후 립스를 통해 로컬창업 소상공인 765개사에 1,227억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졌다. 기업당 평균 투자액(누적, '23.~)도 '23년 1.17억원에서 '26년 1.6억원으로 증가했고, 최초 투자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의 비중도 43.0%에서 57.9%로 높아졌다. 로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민간투자가 전체 규모와 투자 금액 모두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로컬창업 투자 현황('23~'26.8)>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8월)	합계
기업 수	128	120	353	164	765
투자규모	150.7	179.5	560.1	336.7	1,227
기업 평균 투자액 ^{누계}	1.17	1.33	1.48	1.60	1.60

투자 대상은 업력 3~7년 사이의 **중기 기업**(375개사, 49.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평균 업력도 3.6년**이었다. 지원 전후 매출과 고용은 모든 업력 구간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초기 기업의 매출(+188%)과 고용(+100%)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민간투자와 정책지원의 연계가 초·중기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로컬창업 업력별 투자 비교('23~'26.8)>

(단위 : 개사, 억원)

업력		기업 수	비중	매출 변화			고용 변화		
				지원 전	지원 후	성장률	지원 전	지원 후	성장률
초기	(3년 이내)	292	38.2%	2.02	5.82	188.1%	1.49	2.98	100.0%
중기	(3~7년)	375	49.0%	7.43	10.75	44.7%	4.24	5.19	22.4%
후기	(7년 초과)	98	12.8%	12.22	13.88	13.6%	5.89	7.12	20.9%

※ 매출·고용 분석은 지원 전·후 이력이 있는 519개사 대상으로 진행

업종별로는 **제조업**(321개사, 42%), **서비스업**(131개사, 17%), **정보통신업**(126개사, 16%), **도소매업**(125개사, 16%) 순이었다. 그간 벤처투자*가 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뤄진 가운데, **로컬창업 소상공인** 투자는 식품·뷰티 등 소비재 제조부터 가사·건강관리 분야의 생활서비스, 교육·인력 매칭 플랫폼까지 **다양한 생활 기반 사업**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 상위업종 : ICT 서비스, 전기·기계·장비, 바이오·의료 순

<업종별 투자 추이('23~'26.8)>

구분	2023	2024	2025	2026	전 기간
1순위	제조업(48%)	제조업(43%)	제조업(37%)	제조업(47%)	제조업(42%)
2순위	도소매업(16%)	서비스업(18%)	서비스업(21%)	정보통신업(24%)	서비스업(17%)
3순위	서비스업(12%)	정보통신업(15%)	도소매업(20%)	도소매업(13%)	정보통신업(16%)

대표자 연령은 **청년 대표**(20·30대)의 비중이 전체 수혜기업의 **42.9%**를 차지해, **소상공인**(7.7%,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대비 **5.6배**에 달했다. 청년 대표 기업이 투자받은 로컬창업 소상공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청년이 민간투자를 발판으로 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청년 대표 비중 : '23년 44.9% → '24년 34.2% → '25년 44.6% → '26년 46.6%

② 성과로 이어지는 로컬창업 투자

※ (분석대상) 매출·고용 자료가 있는 519개사('23~'25)

<기업규모>

2026년 8월까지 투자받은 로컬창업 소상공인 765개사 중 10개사가 중기업으로 성장했고, 51개사는 총 392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3년간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인 고성장 기업의 비중도 70.7%로 나타났다. 민간 투자를 시작으로 매출을 키우고 후속투자를 유치하며 중기업까지 성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연도별 추이(억원) : '23년 7.43 → '24년 57 → '25년 213.76 → '26.8 391.97

중기업으로 성장한 10개사는 F&B 4개사, 뷰티 2개사, 라이프스타일 4개사였다. 대표 업체로는 ▲ 투자를 통해 중국·일본 등 아시아부터 북미까지 약 40개국의 해외 판로를 개척한 뷰티 기업 '파워플레이어'('23년 선정) ▲ 디카페인 원두 스틱·드립백 등 고품질 제품을 개발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 독점 납품한 '빈스페이스'('25년 선정) ▲ '흑염소 몸국', 엑기스 제품 등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해 3년 연속 매출 증가와 2호점 개점에 성공한 '안다미로 늘봄'('23년 선정)이 있다.

<매출·고용>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창업 소상공인의 기업당 매출 평균은 7.65억원에서 10.94억원으로 43% 증가했고, 평균 고용 인원도 4.0명에서 지원 후 평균 5.3명으로 31%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도 646명 증가해, 민간 투자의 성과가 매출 확대를 넘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다.

<수혜기업 성장 추이('23~'25)>

(단위 : 억원, 명)

구분		지원 전	지원 후	증감	증가율
매출	전체	3,973	5,680	+1,707	43.0%
	평균	7.7	10.9	+3.2	43.0%
고용	전체	2,083	2,729	+646	31.0%
	평균	4.0	5.3	+1.3	31.0%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로컬창업 투자

※ (분석대상) 비수도권 소재 298개사('23~'26.8)

비수도권 로컬창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발히 이뤄졌다. '26년 8월까지 비수도권 298개사(전체의 38.9%)가 582.7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전체 투자액의 47.5%를 차지하여, 로컬창업 투자가 지역으로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 민간투자를 받은 비수도권 로컬창업 소상공인을 살펴보면 제조업 148개사(49.7%), 서비스업 46개사(15.4%), 도매·소매업 41개사(13.8%) 순이었다. 제조업 비중이 수도권(37%)보다 높아, 지역 제조 기반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위 3개 업종('23~'26.8)>

(단위 : 개사)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업종	기업 수	비중	업종	기업 수	비중
1순위	제조업	173	37%	제조업	148	49.7%
2순위	정보통신업	90	19.3%	서비스업	46	15.4%
3순위	서비스업	85	18.2%	도매·소매업	41	13.8%

④ K-소비재와 함께 성장하는 수출

※ (분석대상) 수출 실적이 있는 113개사('23~'25)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창업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됐다. 수출 참여율('23. 12.0% → '25. 22.7%)과 기업당 평균 수출액('23. 1.83억원 → '25. 2.33억원) 모두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 패션 등 K-소비재가 두드러졌다. 수출액 기준으로 화장품(117억원, 45.1%), 의류(29억원, 11.1%)순이었으며, 수출기업 수 기준으로는 화장품(22개사, 20.1%), 식품(12개사, 11.2%)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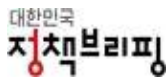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49개사, 43.2%), 일본(40개사, 35.4%), 중국(37개사, 32.7%)순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수출 대상 국가·지역 수('23. 32곳 → '25. 57곳)는 증가하여 유럽·중동 등 해외 판로가 다변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편, 중기부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 여는 「제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와 연계해 '2026년 립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로컬창업 투자 성과, 분석 결과 및 우수 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의 립스 운영사 및 소상공인을 시상한다.

* 지역 특색을 살려 성장한 우수 로컬기업의 성과를 국민과 현장에 공유하는 행사로, 제주 웨라톤 호텔과 LPP(Local Player Platform)에서 개최(<https://festa.jejucreator.kr>)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K-소비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로컬창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유망한 로컬 소상공인에게 민간투자 기회를 넓혀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책임자	과 장	유제환 (044-204-7290)
		담당자	사무관	양승헌 (044-204-7245)
			주무관	정부길 (044-204-7285)



참고 1

LIPS 수혜기업 우수사례

□ (주)파워플레이어

우수사례 ① : 주식회사 파워플레이어

	대표자	김유재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업개요	스킨 케어 브랜드 '온그리디언츠' 운영
	지원사업	립스 I (2023년)
	지원내용	민간투자자와 매칭하여 융자지원
	실적 및 성과	“판로 개척 집중 투자로 40개국 대상 \$444만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연속 매출 급속 성장으로 중기업 진입 * ('23) 40.8억원 → ('24) 75.3억원 → ('25) 260.8억원 ■ 립스 참여 후, 후속투자 20억원 유치(CJ ENM) ■ 스킨케어 제품 외 색조 등 사업 확장 추진

□ 주식회사 빈스페이스

우수사례 ② : 주식회사 빈스페이스

	대표자	조민기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기업개요	디카페인 생두 수입·유통·가공 업체
	지원사업	립스II(2025년)
	지원내용	민간투자자와 매칭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실적 및 성과	“제품 고도화 투자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독점 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매출 154% 성장 및 고용 142.9% 증가 * 매출 : ('24) 126억원 → ('25) 315억원 ■ 가향 디카페인 원두 스틱 2종 개발·출시

□ 안다미로 늘봄

우수사례 ③ : 안다미로 늘봄

	대표자	박재현
	소재지	제주시
	기업개요	흑염소 전문점
	지원사업	립스 I (2023년)
	지원내용	민간투자자와 매칭하여 융자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확장에 집중 투자로 2호점 개점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연속 매출 성장으로 중기업 진입 * ('23) 20억원 → ('24) 25억원 → ('25) 29억원 ■ 신메뉴 개발로 국내 유일의 '흑염소 몸국' 개발 ■ 흑염소 엑기스 제품화로 사업 지속 확장